

이 주의 투자 포인트 (5월 18일 주)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라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대표주의 이벤트에 시장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 리스크와 정부 개입 가능성이 맞물리며 국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FOMC 의사록 공개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발언까지 예정되어 있어 AI와 반도체, 금리라는 시장 핵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엔비디아 실적 – 마진 전망, 신제품, 중국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5월 21일 목요일 오전 5시 이후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13분기 연속 어닝(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기대치 상회 시의 추가 상승폭보다 하회 시 실망 매물 출회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견고한 AI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충격 수준의 하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가이던스와 고객사의 AI 투자 전망은 엔비디아 실적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AI 사이클 지속 기대와 기존 대형 고객사 및 신규 수요 부분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 높은 전망이 지속될 경우 AI 관련 주들의 주가 하방은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이번 실적발표에서는 마진 (Gross Margin) 지속여부, 신제품 전망, 중국 신규 전망 등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단기 마진 우려: 메모리 및 첨단 패키징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속에서도 매출총이익률 (Gross Margin) 가이드라인을 방어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 중장기 플랫폼 전환: 단순 GPU 판매기업에서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마진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 차세대 루빈(Rubin) 칩 생산 확대 이후의 마진 축소 여부와 정상화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경쟁 구도 심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인하우스 칩) 채택 확대와 AMD의 점유율 추격 속에서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 장악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중 회담 이후 중국 향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망치 제시가 있을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 갈등 및 파업 리스크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삼성전자는 노조/파업 이슈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가능 등의 소식이 뉴스로 지속 전달되어 현재 시선은 실제 협상 결론의 시점과 내용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결론이 전달될 시기가 불확실성 해소의 시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기 변동성 확대: 총파업이 가시화되면 메모리 공급 감소 우려와 단기 실적 전망 하향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 생산 차질 규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반사이익

이 기대되는 경쟁사와의 단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중장기 시각 (슈퍼사이클이 단기 부담 상쇄): 다만, 파업 등 노조 리스크에 따른 비용 상승은 단기 노이즈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 조정 발생 시 이를 중장기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